

순천 삼산·봉화산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 확산

시민단체 “사업 위법” 시장 등 고발 시 “감사 결과 위법 행위 내용 없어”

순천 삼산·봉화산 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순천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순천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고의적 위법행위는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순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정부 공영일몰제 사업

에 따라 2016년 9월 삼산지구와 봉화산(광북·신월지구) 공영부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는 (주)한양건설로 삼산지구에 아파트 1252세대를, 광북지구 908세대, 신월지구 332세대를 짓는다.

순천행의정모니터단과 삼산·봉화산민간공원조성사업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 2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가 위법적인 청탁을 수용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자행했다”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무시하고 시의회 의결과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양과 순천시는 난개발 방지를 핑계로

대규모 특혜성 아파트 사업을 진행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 배제해야 할 사업자를 오히려 시행자로 선정했다”며 “사업 시작부터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행정을 처리한 순천시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순천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순천시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사업 취소나 관련자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한 내용 또한 없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을 뿐인데 순천시가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심히 유

감스러울 따름이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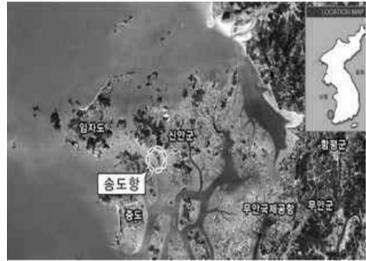
순천시는 이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의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2016년 삼산지구와 광북지구에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주민 300여명이 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를 벌여 특례사업과 관련, 부적절하게 업무가 처리됐다고 순천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젓새우 집결지’ 신안 송도항 수산·관광 거점어항 개발 목표해수청, 실시설계 착수



전국 최대 젓새우 집결지인 신안군 지도 송도항이 수산·관광 거점어항으로 개발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성수)은 국가어항인 지도읍 송도항 개발을 위해 지난달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한데 이어 최근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총공사비 350여억원이 투입될 송도항 개발공사는 안전을 위한 외곽시설(파제 등)과 어업활동의 편의를 위한 접안시설(물양장 등)을 신설하고, 주차장 등 내방객 편의를 위한 시설도 마련된다.

지난 201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송도항은 전국 최대 젓새우 생산 집결지로 육지와 연계가 용이해 전남도의 대표어항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접안시설과 젓새우 위판, 진열, 보관 등 유통 관련 기반 시설이 부족해 어업인들의 불편이 많았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송도항 개발공사는 내년 3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국내 최대 규모의 젓새우 생산 특화어항으로서 전남도의 대표 어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영암군 ‘기찬들 영암물’ 통해 氣찬 농특산물 전국 알린다



영암물 인기 상품 ‘달마지쌀 골드’

라이브커머스 방송 6600만원 매출 달마지쌀골드·무화과쌀빵 등 인기 5~6월 농특산물전·7월 멜론전 등

영암군이 지난 1일 문을 연 온라인 쇼핑몰 ‘기찬들 영암물’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영암군에 따르면 ‘기찬들 영암물’은 2월 홈페이지를 리뉴얼해 입점신청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영암왕인문화축제와 함께 개관해 왕인문화축제를 찾는 시청자에게 영암군의 신선한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에 시너지효과를

더하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리빙)으로 지난 1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유기농 쌀, 대추방울토마토, 유기농 흑미, 유기농 홍미, 꿀고구마 등 영암군의 농특산물을 판매해 전량 완판되면서 66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온라인 왕인문화축제 코너 중 목포MBC 라디오를 통해 영암온에어 즐겨온 오후 2시에 ‘기찬들 영암물’ 광고 홍보를 진행하고, 유튜브 홍보와 바이럴마케팅 등 농특산물 마케팅에 주력해 매출액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기찬들 영암물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중 꿀고구마와 달마지쌀골드, 무화과쌀빵, 매력한우 등이 인기를 얻으며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고 신규 가입 회원수와 입점농가, 입점품목도 증가

고 있다.

기찬들 영암물은 5-6월 영암 농특산물 특별전, 7월 멜론 특별전, 9월 추석 명절맞이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추가로 10월에는 무화과, 11월에는 영암 명품 쌀, 12월에는 김장김치 특별전도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대면 온라인 유통채널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리빙’도 10여회를 더 진행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영암군 우수 농·특산물을 한 곳에 모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영암물에 많이 입점 해달라”며 “다양한 판매 전략을 통해 온·오프라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암=전병환 기자 jbh@kwangju.co.kr

나눔의 대명사 구례 운조루 ‘타인능해’ 정신 잇는다

‘신타인능해 나누고 가게’ 28일 산동면에 문 열어

‘타인능해(他人能解)’ 구례 운조루에 있는 쌀 두가마니 반이 들어가는 뒤주 담가에 새겨진 글귀로 ‘아무나 뒤주를 열고 쌀을 가져갈수 있다’는 뜻이며 나눔정신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말이다. 이 나눔정신을 실천하고 이어가려는 ‘신 타인능해 나누고 가게’가 오는 28일 구례군 산동면에 문을 연다.

25일 구례군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자와 차상위 수급자 200여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의 ‘신 타인능해 나누고 가게’를 면소재지인 원촌마을에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누고 가게’는 주민들과 독지가들의 기부품을 받아 가게에 비치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무상으로



‘신 타인능해 나누고 가게’가 오는 28일 구례군 산동면에 문을 연다.

로 가져 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제역 산동면장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가게를 열게 되었다”며 “큰 보탬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나누는 타인능해 정신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나누고가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1호점 2호점이 만들어져 많은곳으로 확산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기부연락처는 061-780-8560 구례군 산동면사무소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곡성 지역재생잠재력지수 42위

곡성군은 한국농업경제연구원 이 발표한 ‘2020 지역재생잠재력지수’에서 1.65를 기록해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2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15~49세 여성인구 중 둘째 이상 아이를 낳은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지역의 전반적인 출산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곡성군은 인구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생태계 조성과 숲 교육, 예술교육, 4차 산업 교육 등을 중점 육성했다.

또 교육청, 민간과 함께 지역 교육을 전담할 미래교육재단을 출범시켜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해 운영했다.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학습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을 강사로 양성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나주시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시민·기업들 불합리 규제 개정

나주시가 기업·소상공인·시민들이 경제활동·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 신고센터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따른 관련 법령,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규제 개선 건의는 시청 누리집에 운영 중인 규제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읍부즈맨, 나주시청 기획예산실을 방문해 건의하면 된다.

개선에 대한 건의내용, 애로사항은 관련 부서에 즉각 전달해 개선 조치하고 전남도, 중앙부처에 속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지난 21일 전남도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팀과 함께 노인농공단지 입주기업 승진전자산업과 혁신산단 내 유전테크노를 찾아 상담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